

상전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ESG 경영

박주식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parkjsys@ulsan.ac.kr

… 초 록 …

본 연구는 롯데그룹의 창업주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의 롯데그룹 ESG 경영철학에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제강점기 시절인 1921년 울산의 한 빈농에서 태어난 신격호 명예회장은 1942년 일본으로 건너가 해방 직후인 1948년 일본에서 롯데그룹의 창업 기틀을 다진 이후,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모국산업에 투자해 국내 유통·관광 산업의 현대화로 한국 및 일본 등 20여 개국에 200여개 계열사를 둔 자산 115조 원의 거대 기업으로 성장시켜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이러한 탁월한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소박하고 허례허식을 경계하고 낭비가 없었던 거화취실과 자원절약 정신이다. 둘째, 나라를 잃고 외세에 의해서 근대화의 길을 걸어간 식민지 시대에 조국으로 돌아와 기업을 일으켜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던 애국심과 기업보국의 정신이다. 셋째, 사업초기 한국과 일본을 한 달씩 오가며 실천한 이른바 현해탄 경영에서 나타난 전문적이고 참여적인 기업가정신이다. 이러한 그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의 롯데그룹의 기업경영에 계승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재조명하고 그의 기업가정신이 롯데그룹의 ESG 경영과 어떻게 관련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 신격호, 롯데그룹, 기업가정신, ESG

I. 서 론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0년 만에 세계 10권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불도저 같은 돌파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끈 이병철 삼성 회장, 정주영 현대 회장, 구인회 LG 회장, 최중현 SK 회장 등 국내 산업계의 기틀을 닦았던 창업 1세대들의 탁월한 기업가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Peter Drucker(2002)는 한국을

기업가정신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기도 하였다.

기업가정신이란 슈메터(1947)가 처음 제시한 용어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가가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을 통하여 혁신적 가치를 창조하고, 혁신과 사회적 진보의 핵심 주체의 역할을 하며 기술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선도하는 혁신자로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여 자유민주주의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신이라 정의

했다. 권경자와 서진영(2019)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을 건설하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업가로서 또는 경영자로서의 이념과 경영철학이라고 하였다.

한국 대기업 창업주 관련 연구 중에서 롯데 신격호 회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롯데는 세계 10위 기업 중 유일하게 ‘한상(韓商)’이 세운 그룹이다. 농업자본을 산업자본으로 전환하거나,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적산을 활용해 회사를 일군 다른 그룹들과는 달리 롯데는 일본에서 번 돈을 한국에 투자해 조국 산업화에 기여하였다. 이에 신격호 회장은 다른 대기업 창업주와 비교해 볼 때 기업 활동 무대, 사업영역, 경영방식 등의 측면에서 차별적인 면이 존재하며 그의 기업가정신은 어느 창업주에 비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신격호 회장은 1948년 롯데를 창립해 2017년 경영에서 최종 퇴진하기까지 거의 70여 년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롯데를 진두지휘한 기업인으로서 그의 기업가정신을 조명하고 그것이 오늘날의 롯데그룹의 ESG 경영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한편 최근 환경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는데 이는 ESG 경영에 대한 지구적·사회적 당위성과 더불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투자받는 조건으로 부각되고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경제, 2021). ESG가 직접 경제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ESG를 기업 전략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보여주며, 기업이 이러한 지속가능경영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기업가정신이다(방원석·신재익·정대윤, 2022).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 인간으로서의 신격호의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개인적인 성품이나 성장배경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사업의 시작부터 오늘날의 롯데그룹이 존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신격호 회장의 사업가로서의 탁월함과 업적의 규모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 모든 업적과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조명하고 기업가정신이 롯데의 ESG경영철학과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인간 신격호

신격호 회장은 일제 치하인 1921년 11월 3일(음력 10월 4일) 울산광역시 삼동면 둔기리의 영산 신씨 집성촌에서 아버지 신진수(1902~1973)와 어머니 김순필(1904~1952) 사이의 5남 5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맹자에 나오는 “격군심지비(格君心之非)”라는 문구에서 영감을 얻어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이름 가운데 글자를 ‘격’으로 지었다.

아버지와 백부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군권을 빼앗기고 급기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혼란기에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였다. 망국(亡國)의 한(恨)을 절감한 백부는 나라의 힘을 키우려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며 이듬해 사재를 기증해 마을 어귀에 사립학교인 '둔기의숙'을 설립했으며 신격호는 백부의 도움으로 1933년 삼동 공립보통학교 4년 과정을 졸업하고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1933년 4월 6년제 연양 공립보통학교에 5학년으로 편입했다.

1935년 연양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가정 형편상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농사일을 거들다가 재력이었던 백부의 도움으로 2년제 울산농업 실수학교에 진학했다. 1938년 졸업한 뒤 함경도 명천 중앙장에서 견습생으로 1년을 지냈다. 명천에는 탄광이 여러 개 있고 탄광 근처에 있었던 화학공장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훗날 화학공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명천중앙장에서 1년간 견습생 생활을 마친 신격호는 '양 지도기술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 1939년 4월 울주로 돌아와 경남 중촉장에 근무를 시작했으며 그 해 1939년 가을 아버지의 소개로 삼작마을 노회규 어른의 딸 노순화와 혼례를 올렸다.

당시 고향 둔기마을에서는 극심한 가뭄과 이듬해의 흉수로 나무껍질과 풀뿌리로 연명을 했다. 고향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사업가의 꿈을 키우던 신격호는 1941년 부인과 딸 신영자를 비롯한 가족과 고향을 뒤로한 채 성공을

위해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하였다. 일제강점기에서 배움을 열망하던 청년 신격호는 사촌 형이 마련해준 단돈 83원으로 1942년 울산에서 일본 시모노세키항 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초등학교 친구의 하숙방에 얹혀살며 신문과 우유 배달 등으로 고학 생활을 시작한다. 신격호는 온갖 허드렛일하며 문학도의 꿈을 키워,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작가가 되지 못하면 신문기자라도 되려고 했다. 그러나 문학을 전공해서는 먹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문학청년에서 사업가로 꿈으로 방향을 바꾸어 와세다 실업학교 고등부의 야간부 화학공학과에 적을 두고 학업을 이어갔다.

2. 사업가 신격호

고학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1944년 아르바이트하던 전당포에서 60대의 하나미즈(花光)라는 자산가가 그의 성실함을 인정하여 5만 엔이라는 거금을 빌려주면서 커팅오일 공장을 해보라고 권했다. 이렇게 지어진 커팅오일(절삭유) 공장은 순조롭게 운영되는 듯 하였으나 두 번이나 미군의 폭격을 받아 잿더미가 되는 불운을 맞게 되었다. 두 번째 폭격은 1945년 8월 1일 남포기일을 며칠 앞둔 날이었는데 2주 후 대한민국을 광복을 맞이한다.

1946년 와세다고등공업학교 화학학부를 졸업한 후 도쿄의 스기나미구 오기구보에 있는 군수공장의 기숙사에 사업장을 차리고 롯데의 전신이 되는 히카리(光)특수화학연구소를 설립하였다. 취사용 술에 재료를 넣고 끓여서 설탕비누,

세숫비누, 포마드 크림 등 유지류를 만들었고 이렇게 가내수공업 규모의 공장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1년 6개월 만에 하나미즈에게 빌린 돈을 모두 갚았으며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이진의 사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집 한 채까지 선물하게 된다. 이 일에 대해 훗날 신격호는 자신을 진폭적으로 믿어준 하나미즈에 대한 인간적인 신의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당시 근거 없이 한국인을 모함하고 천대하는 일본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지키기 위함이었다고 회상하였다.

일본의 패전 후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자 껌은 일본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게 되었고 화학을 공부한 그는 껌 제조법을 배우고 개량하여 고품질의 껌 제조업자라는 평판을 얻게 되었으며 일본의 과자점 주인들이 제품을 납품받기 위하여 신격호의 연구소 앞에서 새벽부터 줄을 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장의 반응을 통해 가능성을 엿본 신격호는 본격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으며, 1948년 6월 28일 현재 롯데그룹의 모체인 (주)롯데를 설립하였다. 롯데라는 사명은 그가 평소 즐겨 읽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 '샤롯데'에서 따온 이름이다. 롯데는 창업 5년 만에 종선검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판검 시장에도 진출하여 일본 껌 업계 1위 자리를 굳히며 초코릿과 캔디 등의 시장으로 진출하여 명실공히 제1의 종합 과자 메이커로 도약하여 1964년에는 가나초콜릿, 1969년에는 캔디, 1972년에는 아이스크림 제품

을 출시하게 되었다.

한편 1945년 광복 후 한국인들의 쌓인 반일감정과 이승만 대통령의 반일 성향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과 단교 상태였으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광복 후 20여년 만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며 해외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하였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신격호 회장에게 정부가 외자도입법에 따른 지원을 약속하고 고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신격호 회장은 모국에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1967년 4월에 롯데제과를 설립하여 당시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동양제과가 장악하고 있었던 한국 제과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1970년에는 껌과 과자 포장 은박지 생산을 위해 동방알미늄을 인수하여 '롯데알미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1973년에는 ㈜호텔롯데를 설립한 후, 1979년 '롯데호텔 서울'을 준공하였으며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쇼핑 시설로서 롯데쇼핑 센터를 완공하였다. 이처럼 롯데호텔과 롯데쇼핑을 건립하면서 롯데는 제과업에서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3.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과

ESG경영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거화취실, 정열, 도전과 개혁정신, 보은의식과 보국정신, 완벽주의, 품질 제일주의 등 다양한 용어로 묘사되고 연구되어 왔다. 그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롯데그룹의

ESG경영철학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둘을 연계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하겠다.

1) 환경중심경영(E)

롯데의 성공 비결은 ‘거화취실(去華取實)’이다. 화려함을 멀리하고 실리를 취한다는 뜻으로 신격호 회장 집무실 액자에 있는 문구이다. 이 같은 신격호 회장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은 그의 고향 울산 둔기리 별장이다. 집무실로도 사용했던 이곳은 단출함 그 자체다. 에어컨 대신 40년도 더 되어 보이는 선풍기가 있고, 벽에는 명화가 아닌 소박한 풍경 그림이 걸려있으며 소파와 침대, 의자들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다. 고인이 된 이후에도 묘를 자연적으로 택한 것도 신격호 회장의 소박하고 허례허식을 경계하고 낭비가 없었던 거화취실과 자원 절약 정신을 잘 보여준다.

임종원(2010)은 신격호 회장이 추구하는 거화취실에서 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많은 사람의 이익을,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추구하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잠시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간 걸쳐 이익이 될 수 있다면 후자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롯데 신격호 회장은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 당장 앞으로의 5년, 10년만을 고려하지 않고 30년, 50년을 고려해 결정하였다. 이처럼 자원절약 정신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장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의 기업가정신은 롯데그룹의 환경중심경영에 배어져 있다.

롯데그룹은 환경정책 및 환경 리포트

발간, 온실가스 절감 노력, 롯데 어린이 환경학교, 기후변화 전문교사 양성, 환경상품권 캠페인, 제2롯데월드 친환경 최고층 건물 건설 노력 등 수많은 환경중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협력회사를 대상으로도 환경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즉 그린 파트너십, 협력회사의 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생산 및 물류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경경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협력사에 배포하고 있다.

2) 사회적 책임경영(S)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경영은 신격호 회장의 보은의식과 보국정신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앞서 기술한 자신의 성실함을 믿고 투자한 하나미즈에게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고향 주민들을 위로하기 만든 둔기회 모임을 44년 동안 후원하고, 일본에서 부를 축적하여 모국의 산업발전을 위해 투자하고 모국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재투자한 사실들을 통해 신격호 회장의 보은의식, 이웃사랑 그리고 애국심을 엿볼 수 있다.

1967년 한국 롯데제과 설립기념식에서 했던 “소생의 기업 이념은 품질 본위와 노사협조로 기업을 통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는 것입니다.”라는 인사말 속에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의 책임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79년과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경제가 최악의 어려움을 겪었던 시

기에도 신격호 회장은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였으며 특히 1997년 말, 외국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달러부족으로 인한 위환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신격호 회장은 세계인사로서는 처음으로 2천만 달러의 개인재산을 출자하고, 5억 달러의 외자를 도입했다. 이 일로 인해 애국자 신격호라는 호칭이 얻기도 하였다.

롯데장학재단,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 복지재단 등 다양한 장학 및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24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울산과학관을 설립하여 연평균 36만 명이 방문하고 있다.

롯데는 그룹과 계열사 차원에서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이로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롯데지주의 ‘mom 편한 놀이터’, ‘mom 편한 골다락’, 롯데면세점의 ‘mom 편한 힐링타임’, 세븐일레븐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롯데하이마트의 ‘굿윌스토어’, 롯데홈쇼핑의 ‘중소PP 제작 지원 공모사업’ 등이 있다.

3) 투명한 지배구조(G)

신격호 회장은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경영을 해야 했으므로, 일찍부터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었다. 그는 홀수 달에는 신격호, 짝수 달에는 시게미쓰 다케오(重光武雄)가 된다. 그 이유는 홀수 달에는 한국에서, 짝수 달에는 일본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현해탄 경영, 대한해협 경영, 서틀경영이라고 다양하게 부른다. 또한 롯데 전사원들의 아이디어를 살리고 권장하는 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업초기

부터 책임의 위임을 통한 전문인 경영과 구성원 참여가 자연스러운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또한 신격호 회장의 안전경영도 유명하다. 무차입경영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한편,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히 호텔과 백화점 등 롯데의 모든 시설물들은 우리나라의 현행 안전법규를 훨씬 초과하여 방재시설과 장비들을 갖추도록 하였다. 실제 호텔 객실의 담요와 커튼에 대한 불연성 테스트를 직접 지켜보고, 법규에 관계없이 모든 객실에 가스 마스크를 비치토록 했다.

앞서 기술한 보국정신은 롯데의 지배구조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 롯데의 규모가 일본 롯데보다 훨씬 크며 일본에서 축적한 부를 모국의 산업발전에 투자하고 모국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해외로 송금하지 않고 재투자하는 구조로 한일 롯데그룹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신격호 회장의 경영이념을 이어받은 신동빈 회장은 투명·원칙·도덕성을 강조하는 경영철학으로 주주가치 제고, 투명경영, 건강한 노사문화 정립 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7년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하며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었다. 앞선 2016년 3월에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산규모 3000억 원 이상 계열사에 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하고, 자산 1조 원 이상 계열사에는 투명경영 위원회를 설치했다. 각 계열사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는데 롯데 케미칼은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간 분리 가능성을 명시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롯데면세점 또한 공정거래 자율 준수 시스템 강화하고 있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이 롯데그룹 ESG 경영철학에 어떻게 계승 발전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오늘날 롯데그룹의 ESG 경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거화취실과 자원절약정신, 보은의식과 보국정신, 전문성, 안전, 참여를 중요시하는 경영철학으로 요약할 수 있고, ESG경영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ESG 경영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실제로 롯데의 ESG경영 실천과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롯데그룹의 경영진은 물론이고 롯데의 각 계열사들은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을 이어받아 친환경 경영 선도, 저탄소 경영추진, 혁신/포용경영 실천, 훌륭한 일터 조성, 지속가능한 파트너십 구축, 지역사회 발전 기여, 선진 지배구조 정착, 주주차기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ESG 경영을 선포하고, 실행을 통해 사회공헌과 공유가치를 창조하고 있다. 또한 그룹 내의 모든 상장사 이사회 산하에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상장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한 곳은 롯데가 처음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1년 한국기

업지배구조원(KCGS)이 발표한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평가대상 상장사(롯데지주, 롯데케미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정밀화학,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모두 'A등급'을 획득하며 롯데 그룹 내 ESG 경영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신격호 회장의 기업가정신이 오늘날의 ESG 경영철학과 닿아있고 상술한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세상 시대를 앞서가는 경영철학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되새기게 된다.

참 고 문 헌

- 권경자·서진영,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도서출판 자의누리, 2019.
- 김태훈, 「신격호는 어떻게 거인 롯데가 되었나」, 도서출판 성안북스, 2014.
- 롯데지주, 「열정은 잠들지 않는다」, 도서출판 나남, 2021.
- 방원석·신재익·정대율(2022), 공공기관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보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7(3), 313-334.
- 임종원, 「롯데와 신격호, 도전하는 열정에는 국경이 없다」, 도서출판 청림, 2010.
- 피터드러커, 「미래사회를 이끌어가는 기업가정신」, 도서출판 한국경제신문사, 2004.
- Drucker, P. E.(1995).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London and New York
- Drucker, P. F. (2002). The discipline of innovation. *Harvard business review*; 80(8), 95-102.
- Shumpeter, J. (194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New York

참고 웹 사이트

<https://namu.wiki/w/신격호>

<http://www.cgs.or.kr/>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105221>.

<http://www.lotte.co.kr>

<https://blog.lotte.co.kr>